

디지털 시대 비전문가들의 참여 번역 현상 - 그 의미와 번역계의 미래에 주는 시사점*

김 순 미
(숙명여대)

1. 머리말

전문 번역사의 가장 큰 특징은 공식 교육과 필드 경험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물질적 대가를 받는다는 점이다. 통번역업계는 지난 40년간 이와 같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화를 향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관과 교육체제 성립, 사회적 인정 도모와 협회 설립, 윤리강령과 평가제도 마련, 법적 권리 보장 등으로 나누어진 전문화의 4단계 과정을 밟아온 것이다(Mikkelson 1996). 이런 가운데 최근 10년간 사회 변화와 인터넷·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번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비전문가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공식적인 언어간 중재(mediation) 교육을 받지 않았고, 공인된 자격증도 없으며 기관이나 학회에

* 본 연구는 한국통역번역학회 2016년 봄 학술제의 발표를 발전시킨 것임.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번역 활동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장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소수의 특권층, 전문가들만 접근하고 다룰 수 있던 콘텐츠에 일반인도 자유롭게 접근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되자 번역 수요를 자발적으로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일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실시간 의견을 나누고 협업을 한다. 이 비전문 번역가들은 공식 통번역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언어 능력과 문화적 소양, 특정 분야에 관한 장르 지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화나 TV, 교육 콘텐츠, 뉴스, 게임, 웹툰, 노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와 번역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 이 시기에 수동적인 정보 수신자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 콘텐츠의 생산 및 소비의 새로운 주축이 되고 있는 것이다(김순영, 정희정 2010).

비전문가의 번역이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자 국내외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비전문가 번역 연구는 팬들이 행하는 오락 영상물 자막번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팬자막을 넘어 뉴스, 웹툰, 게임, 노래 가사 등 다양한 장르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 번역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나 연구는 한 장르나 이슈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현상에 대한 전반적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비전문가 통번역이라는 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의 가장 큰 목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중심으로 비전문가 번역을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금까지 국내 비전문가들이 행한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려 한다. 또한 국내외에서 행해진 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배경, 특징, 활동 동기 등 전반적인 실체를 파악한 후 비전문가들의 활동이 번역계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사회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전문화를 투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번역계가 이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 스마트폰, 영상매체 등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전문가의 활동 중에도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번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통역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활동, 재난구조 등의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연관성이 두드러지지 않

으며 성격이 다른 두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으리라 보았다.

2. 비전문가 번역의 연구 동향 분석

2.1. 팬 자막번역 연구

비전문가 번역에 대해 정리하고 이 현상이 주는 시사점을 알려면 먼저 현재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우선 가장 많은 연구가 행해진 팬자막 현상을 먼저 보고 이후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려 한다.

국내의 비전문가 번역 초기 연구들은 팬 자막번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팬 자막번역은 기존 자막의 품질이 만족할 만하지 못하거나, 신속하게 사용자들에게 배포되지 않을 때, 혹은 배포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을 공유하고자 하는 열성 팬들이 번역을 하여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이상빈 2011: 121). 이들 연구는 팬자막의 확대 가능성, 사용자들의 호의적 반응, 팬자막 고유의 번역 전략이 전문 영역으로 확산되는 현상, 불법성을 뛰어넘는 팬자막의 장점, 팬자막 번역가의 역할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킴으로서 팬자막을 위협으로 보기보다 기존 번역 체제에 기여를 하고 확장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 특징이 있다. 각 연구 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순영과 정희정(2010)은 팬 번역이 불법 다운로드를 둘러싼 위법성, 윤리적 문제, 비전문가의 번역으로 인한 품질 문제 등으로 학술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동시에 팬자막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적 제약을 뛰어 넘는 다양한 전략(다양한 색과 자막 위치, 두 줄 이상의 자막, 자막 상의 내주 활용, 독자에게 되묻기 형식의 자막, 텍스트 외적 정보 추가, 출발텍스트와 도착텍스트의 병기 등)을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번역가의 가시성, 이국화 전략을 쓰는 점 등 기존 자막번역과 다른 팬자막의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비전문가 번역 연구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초창기에는 위와 같이 혁신적이고 주변적이었던 팬 자막번역은 점점 주류 문화와 교류하고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전문가들의 자막번역에서 팬 번역 전략

을 전격 수용하는 현상까지 볼 수 있다. 이지민(2015)에 의하면 번역물 뿐 아니라 한국어로 제작된 뉴스, 퀴즈 프로그램, 예능, 다큐멘터리에서도 팬 자막처럼 글자체, 색상 등이 바뀌고 움직이는 전략을 사용해 흥미를 높이고 제작진의 의도까지 전달하는 시대가 왔다고 한다. 또한 전통 자막번역에서도 팬 자막 전략인 색깔과 크기, 위치 등을 달리하거나 글자수를 늘리거나 설명 추가하는 전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자는 이에 대해 단지 팬 번역 전략을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ST 콘텐츠가 변화하고, 매체가 다양화됨으로 인해 전문가 자막과 팬 자막 모두가 진화는 현상이라고 한다.

팬 번역 연구는 자막의 형식적 특징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상빈(2011)은 대부분의 팬 번역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번역을 수행하고 그 번역물을 팬덤에 공개·배포 한다는 점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팬 번역이 대부분 소송이나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조명하고 있다. 우선 팬 번역이 저작권자에게 크게 해로울 것이 없다는 소극적인 측면과 함께, 무료 홍보효과를 통해 원작 흥행 지원, 팬들의 장르 지식이 담긴 번역을 공식 번역본 제작에 활용 가능, 참여문화 확산, 문화교류 확대 등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비전문가 번역의 문화, 경제적 장점을 통해 왜 이 분야가 저작권 시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김호영, 홍남희(2012)는 온라인상에서 미드 제작에 참여하는 12명의 ‘번역 제작자’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참여 동기와 역할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참여 번역가들의 ‘능력’을 영어,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지식 등 ‘문화자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즉, 영어실력이 매우 중요한 문화 자본인 한국에서 전지구적 미디어 텍스트라 할 수 있는 미드의 번역은 영어 실력 쌓기와 문화 즐기기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연구는 번역학이 아니라 미디어 분야에서 행해진 연구로 비문가 번역이야말로 학제간 연구 성격이 짙은 번역학이 미디어나 사회학 등 근접 학문과 가깝게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분야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번역가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팬자막을 수용하는 ‘이용자’ 측면의 연구도 있었다. 박경리(2013)의 미국 드라마 팬자막의 이용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드라마 팬들은 대부분 팬 번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품질 면에서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팬 번역은 자유로운 속성 상 체제에 저항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한 연구도 있다. 팬 번역과 검열에 대한 중국어 팬자막 연구(김가희 2015; 김가희, 최릉우 2015)에 의하면 중국 팬자막 이용자들은 팬 번역을 중국 정부의 검열망을 피해 텍스트를 수용하는 좋은 방법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검열 이전에 번역가들의 자가 검열 행위로 인해 이 경향은 아직 크게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관찰되지 않는다고 한다.

위 연구들은 팬 자막 연구는 새로운 문자 체계와 창의적 번역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공식본이 나오기 전에 이를 홍보하며, 정치적 권력을 가지지 못한 일반인들이 지배 세력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스스로 외국어와 번역을 학습하고 영향력을 넓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경제, 사회, 정치, 홍보 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팬 자막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법성, 저작권 문제를 뛰어 넘어 기존 번역을 보완할 뿐 아니라 확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2.2.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는 비전문가 번역 연구

비전문가 번역 연구는 팬자막 연구에서 시작하여 최근 다양한 장르와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게임 번역에 대한 팬들의 반응과 참여(이상빈 2012), 집합지성과 네티즌 번역 연구(이지민 2014), TED 영상물에 나타나는 문화관련 어휘 번역 양상(이지민 2014), 참여적 뉴스번역(강지혜 2012; 송연석 2014), 팬 웹툰 번역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친밀성(조성은, 조원석 2015), K-pop 번역 양상(김민지 2016) 등이다. 이들은 각 장르에서 국내 최초 연구들이라는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참신한 주제로 학문적 의의가 큰 연구들이다.

위의 연구들을 텍스트 장르별로 보면 첫째, 이상빈(2012)은 게임번역 중심으로 스타크래프트(Starcraft) 배급사인 블리자드(Blizzard)가 팬들에게 원어의 의미와 성격을 잘 살려주는 명칭,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의 세계관에 어울리는 유닛과 건물 등의 번역어를 제시하도록 하여 상업적 성공을 거둔 번역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팬들은 실제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장르 지식(genre knowledge)으로 무장하고 있어 전문가보다도 더 정확하고 참신한 번역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비전문가들의 참여는 첫째, 게이머들 간

연대감을 강화시키고, 둘째, 관련 콘텐츠 판매 증가 효과를 거두며, 셋째, 공식 번역본의 무료 사전 홍보 효과를 올리고, 넷째, 다양한 버전의 번역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팬들의 번역은 무보수로 행해지며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기 때문에 개발업체에게는 비용 및 마케팅 측면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저작권 관련 불법성을 뛰어넘는 팬 자막번역의 장점을 보여준 연구(이상빈 2011)와 함께 팬 번역이 오리지널 콘텐츠나 공식 번역본, 관련 상품에 주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의 또 다른 중요점은 기존의 개인 중심 팬 번역 영역을 게임 회사라는 기관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보여준다는데 있다.

두 번째, 이지민(2014a; 2014b)의 연구는 TED와 같이 지식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협업이 중요한 번역환경에서 네티즌 번역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보는 연구이다. 연구자는 가생이 닷컴, 위키백과, 네이버 지식iN, TED 번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이 유용한 지식을 전파시키는 집합지성, 협업번역 현상과 특징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협업의 강도나 역할 분담 정도, 협업 방식, 번역가의 정체성, 시청자 특성, 번역 목적 등에 따라 번역의 형식적 자유가 달라짐을 강조했다. 비전문가 번역이라고 해도 의뢰자가 있는 경우 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번역하며, 팬 자막번역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텍스트가 원문에 충실하거나 네티즌 문화를 반영하는 자유로운 번역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텍스트의 목적을 반영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 또한 비전문가 번역 연구를 개인 주도에서 기관 주도의 영역으로 확대시킨 의의가 있다.

세 번째, 뉴스번역을 중심으로 비전문가 번역의 체제 전복적이고 저항적, 정치참여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도 있다. 강지혜(2012)는 ‘나는 꿈수다(일명 나 꿈수)’에 대한 이코노미스트지 기사를 번역한 블로그를 중심으로 누리꾼들의 번역 특징을 연구하였다. 그는 누리꾼들은 공적 서사(public narrative)가 기득권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어 자신들의 서사와 합치되지 못하는데서 자신들의 가치를 반영하는 텍스트를 스스로 선정하여 번역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 번역되지 않았을 텍스트가 번역되어 세상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기존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과 같은 번역 품질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송연석(2014)은 뉴스프로와 연합뉴스라는 제도권과 비제도권 언론에 대한 비교, 뉴스프로와 팬 번역의 공통점 비교 등을 통해서 비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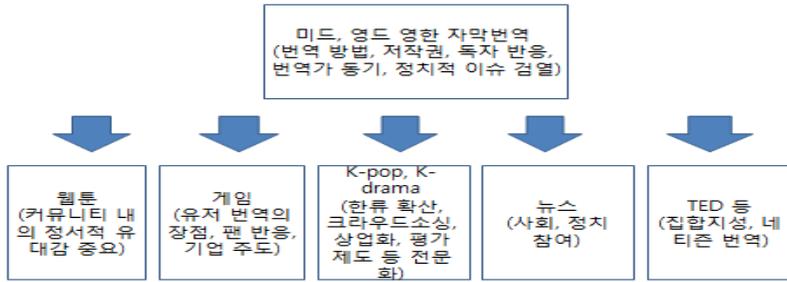
들의 번역이 가진 공통적 등장 이유, 즉, 기존 번역에 대한 결핍감에 대한 대안과 이데올로기적 지향성 등을 조명하고 있다. 뉴스번역 연구들은 주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정치와 사회 참여행위로서의 비전문가 번역을 다룬 시도이자 번역 품질 중심 평가 기준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는 의의가 있다.

네 번째, 조성은, 조원석(2014)의 연구는 온라인 웹툰번역을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팬번역의 특징을 팬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배경 지식, 독자의 정서적인 호응과 관심을 끌어내는 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결속력에 있다고 하면서 텍스트 생산자로서 이들이 가지는 영향력은 앞으로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팬 번역이 가지는 ‘감정적 친밀감’이 커뮤니티 내에서 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 번째, 김민지(2016) 연구는 K-pop의 유포에 큰 역할을 하는 비키(Viki)의 자막번역 인력 구조, 번역 과정, 번역 양상 등을 기존의 제작사나 방송사에서 행하는 가사번역과 비교하고 있다. 저작권을 얻은 콘텐츠를 이용하고 시청만 할 뿐 다운로드를 할 수 없도록 한 비키의 혼종형 모델을 통해 팬 번역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체적으로 협업 평가를 통한 품질관리까지 하는 프로세스, 영어로 일차 번역된 후 매우 다양한 언어로 신속하고 품질 좋은 번역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 등을 보여줌으로써 상업 기관들이 팬들의 번역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위의 연구들은 비전문가 번역은 기존 번역보다 품질이 낮은 주변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배경 지식,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정서적 교감을 통해 만들어가는 텍스트로 전통 번역과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번역 프로세스 상으로는 협업, 수평적/개방적 관계가 드러나고, 작업 환경 면에서는 커뮤니티 중심, 정서적 친밀감 중심 등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번역 방법 면에서는 협업의 강도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번역이 행해진다. 또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전복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도 있어 비전문 번역가들은 물질적 보상을 넘어서는 강한 내적 동기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국내 연구 분석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행해졌으나 비전문가 번역이 다음 <그림1>과 같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비전문가 번역의 종류와 특징



이제 위의 국내 연구와 해외 연구를 중심으로 비전문가 통번역의 종류, 배경과 동기, 내용을 정리한 후 이 분야의 번역학적, 사회적 시사점을 분석해보려 한다.

3. 비전문가 통번역 참여의 내용

3.1. 비전문가 번역 활동이란?

통번역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통번역에 참여하는 번역은 일반적으로 “비전문가 통번역”(Pérez-González & Şusam-Saraeva 2012)이란 수식어가 붙으나 각 상황에서 강조되는 점에 따라 규정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첫째, 금전적 보상을 바라지 않는 면과 공공 기여가 부각되는 경우, ‘자원봉사 번역’, ‘참여 (participatory) 번역’ 등으로 부를 수 있다. 이에 속하는 것은 인도적 구호기구의 통번역 봉사(Rosetta Foundation, Kiva, Ashoka 등), 정치적 의미를 지닌 번역단체 활동(Babels, Tlaxcala), 소프트웨어나 오픈 소스 로컬리제이션 프로젝트 (Translation Project), SNS 웹사이트 클라우드소싱 번역(Facebook, Twitter) 등이 있다(Olohan 2012: 194). 비전문가의 통번역을 참여나 봉사라 부르기 위해서는 “주로 아마추어들로 구성되는 (간혹 전문가도 참여하는) 행위,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기간 지속되는 행위, 제공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는 행위,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개인적으로 행해지기보다는 주로 공식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Maeve

Olohan 2012: 194) 등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즉, 지속성과 기관을 통한 무료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비전문가 번역은 인터넷 커뮤니티 기반의 소셜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번역”(O’Hagan 2011; Désilets & van der Meer 2011)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드 팔마(De Palma)와 켈리(Kelly)는 다음 <그림2>와 같은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협업번역 프로세스 (De Palma & Kelly 2011)



이런 번역은 하향식, 일방향식 전달체계가 아니라 번역가, 용어전문가, 도메인 전문가, 검열자, 운영자 등이 모두 함께 긴밀하게 서로를 이해하며 효과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수평적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용어와 메모리 공유, 중개자 없이 번역가와 고객을 직접 연결해주는 온라인상 번역가 중개 시장, 번역 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역 교정과 교열 행위, 협력 번역 등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전문 번역기관의 업무 프로세스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으나 현재의 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는 참여자의 수가 기존 번역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Désilets & van der Meer 2011). 웹 2.0 시대의 번역은 위에서 본 것 같은 커뮤니티내의 번역과 함께 유사한 개념인 ‘크라우드소싱 번역’(crowdsourcing translation), ‘협업 번역’(collaborative translation)을 합쳐 “3C 번역”(3C translation)(De Palma & Kelly 2008, O’Hagan 2009 재인용)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비전문가 번역은 사용자, 시청자, 소비자들이 다시 공급자가 되는 사용자 제공 번역(user-generated translation)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번역계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문화, 경제 전반에서 인터넷 환경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생산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산자가 되는 현상의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이를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훨씬 활발하고 깊이 있는 유저들의 미디어에 대한 개입”(Jenkins 2006, O’Hagan 2009: 104 재인용)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소비자가 동시에 생산자가 되어 대중들을 위해 퍼트리하는 위키피디아(Wikipedia)나 유튜브(YouTube)로 대표되는 Web 2.0 문화와 맥을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제공 번역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스스로 원하여 디지털 미디어 공간에서 무료로 활동하는 사용자들의 참여에 기초한 다양한 종류의 번역”(O’Hagan 2009: 105)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들의 언어능력, 분야 지식, 그리고 주제에 대한 흥미에 기초하고 있다.

3.2. 비전문가 활동 분야

비전문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영역은 팬서빙(fansubbing)과 팬픽션(fanfiction), 뉴스번역, 종교의식 중재, 인터넷과 블로그를 통한 사회운동과 사회관계망 구축, 인도적 구호행위 지원, 커뮤니티 통번역, 전쟁과 갈등상황 통번역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하다(Pérez-González & Susam-Saraeva 2012). 2장의 선행연구에서 보았듯, 비전문가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것은 팬 번역이었으나 비전문가 번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훨씬 광범위하며, 복잡한 사회적·기술적 맥락 안에 있다. 이제 확장된 이들의 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겠다.

첫째, 오락물 번역이다. 비전문가 번역은 영화나 미국·영국 드라마 자막번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게임(이상빈 2012), k-pop(김민지 2016), 웹툰(조성은, 조원석 2015), 한국 드라마(Dwyer 2012) 등 다양한 문화상품을 포함하고 있다. 언어의 방향도 영한번역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한영번역을 통해 영어로 번역된 뒤 각국 언어로 확산되는 경우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둘째, 지식이나 교육 콘텐츠, 즉 뉴스, 블로그, 웹사이트, TED(이지민 2014a) 나 MOOC 강의(Zhang & Mao 2013)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사회 변화와 개혁을 목적으로 뉴스(강지혜 2012; 송연석 2014)나 블

로그 번역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광의의 ‘시민 저널리즘’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참여는 기존 언론이 기사 선정과 제작 과정의 불투명성과 과도한 권위로 일반 시민들이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시민들이 어젠다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화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Goode 2009).

넷째, 외부의 행정상 필요에 호응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재난구호기관(Munro 2010)에서 응급 재난상황에 자원봉사자들의 통번역을 이용해 구호활동을 펼치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글로벌 비전,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한국 컴패션 등 인도적 원조기관이 온라인 상에서 자원봉사 번역가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¹⁾.

다섯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로컬리제이션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대상으로 번역가를 모집하고 번역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 페이스북(Facebook),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Google) 같은 IT, SNS업체나 게임업체 등은 최근 들어 스스로 번역을 발주하고 자사의 인터넷 환경에 친숙한 사용자들을 모아 온라인상 활용할 수 있는 틀과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번역을 하고 있다(Désilets & van der Meer 2011; Jiménez-Crespo 2011; McDonough 2012; O’Hagan 2011).

여섯째, 다양한 문서와 영상의 번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번역을 해줄 사람을 연결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개 플랫폼도 있다. 이들은 전문 로컬리제이션 회사들이 번역물을 수주 받아 전문 번역가들에게 발주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전 과정을 동시다발적으로 행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다. 겹고(Gengo), 플리토(Flitto), 큐쿠미스(Cucumis) 등이 있으며 일반 번역 발주자들의 평가에 따라 추후 업무 배정이나 번역 채택되는 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객관성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의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비전문가들은 독자 혹은 시청자로서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1)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http://vandi.childfund.or.kr/main.do>
 글로벌 비전 <http://vandi.childfund.or.kr/main.do>
 굿네이버스 <http://pen.gni.kr/index.do>
 월드비전 https://letter.worldvision.or.kr/member/join_step1.asp
 한국 컴패션 <http://www.compassion.or.kr>

번역비평이나 분석, 오역비판 등을 하면서 번역될 콘텐츠의 선정, 번역 방법,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전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판사나 번역가들은 소비자들의 의견에 적극 대응하고 의견이나 제안을 번역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김순미 2012; 최수연 2016).

3.3. 비전문가의 번역 참여 동기

그렇다면 이들이 개인적으로 봉사나 참여를 결심하는 동기는 무엇일까?

첫 번째, ‘흥미나 관심 분야 공유’이다. 예를 들어 한글 자막이 없거나 있더라도 질적 수준이 낮은 경우 이를 스스로 제작하여 원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한다. 이런 동기에서 모인 사람들은 번역 뿐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감독, 내용, 캐스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정보를 소개하기도 하는 등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김호영, 홍남희 2012). 이 경우 콘텐츠 생산자들은 한편 다른 생산자들이 만든 자막의 소비자가 되는 구조가 이루어진다. 자막번역과 유사하지만 오락적 콘텐츠가 아니라 지적, 교육적 콘텐츠를 공유하려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 흥미와 함께 사회적 책임감에 이끌려서 번역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TED의 개방 번역 프로젝트(Open Translation Project)의 웹사이트²⁾에서는 TED 비디오 번역이 교육적 의미가 큰 비디오를 남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정에서 시작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정치 참여’이다. 통번역에 참여하지만 팬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통번역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국내에 중요한 이슈이지만 번역되지 않는 정치적 기사를 주로 번역하여 올리는 뉴스프로(<https://thenewspro.org/>)나 세계 최대의 온라인 번역 커뮤니티 이안(yeeyan)(<http://www.yeeyan.org/>)의 경우와 같이 사회 내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거나 지지하는 단체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 ‘외국어 학습’이다. 전지구적으로 영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영어로 된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영어를 비롯 외국어 실력 향상이나 자기개발 등”(김호영, 홍남희 2012; Zhang & Mao 2013)도 번역을 하

2) <https://www.ted.com/about/programs-initiatives/ted-open-translation-project>

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미드는 수용 동기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 지적, 경제적 위치를 부여하는 영어라는 문화 자본을 얻기 위한 것인 경우가 많고 이를 번역하는 계기 또한 영어실력을 늘리고자 하는 학습적 이유가 강한 것이다.

넷째, ‘경력과 커뮤니티 내의 인정’이다. 온라인상 협업 번역을 하는 경우는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실천도 부족하고, 그 동기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황주영, 최서영 2010). 단,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라고 하는 링크드인 설문조사를 참고로 볼 수 있다. 링크드인은 2009년 번역사들을 무보수로 참여시켜 웹사이트의 이력 번역을 하도록 했다가 전문 번역사들의 저항으로 중간에 이를 포기한 적이 있다.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과정에서 링크드인이 번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외부에서 비전문 번역가들의 동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³⁾. 우선 설문조사에서는 개인이 번역 봉사를 할 때 기대하는 혜택을 개인적인 즐거움, 우수번역가 인증, 링크드인 프로필에 번역 경력 강조, 링크드인 번역가 그룹 회원자격, 계좌 업그레이드, 그 외 등 요소들로 구분했다. 12,000명 번역가들의 항목별 응답 결과는 18%, 21%, 38%, 30%, 45%, 29% 등이었다(다항목 선택 가능). 의외로 링크드인 계정 업그레이드나 프로필 관리 등의 측면이 봉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개인들이 기관의 주도에 반응할 때 환경에 대한 친숙함과 감정적 밀착, 인맥 쌓기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이는 협업하는 개인들에게는 통번역사로서 인정, 자격, 이력, 경험, 훈련 등 개인적인 이력과 관련된 동기가 중요한 요소임을 입증하고 있다(Olohan 2012).

다섯째, ‘인도적 봉사’이다. 비전문가들은 NGO의 웹사이트, 관련 문서 번역이나 편지쓰기 봉사 등을 할 때 순수하게 인권증진이나 위기·재난 상황에서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월드비전 편지쓰기 번역봉사단 모집의 글 “한국의 후원자와 해외 후원아동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편지를 통해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재능나눔 번역봉사단입니다.”⁴⁾에는 인도적 봉사 정신만이 기본 동기가 되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기반으로 각 동기별로 대략 다음 <표1>과 같이 통번역

3) Translating LinkedIn into many languages (LinkedIn official blog)

<http://blog.linkedin.com/2009/06/19/nico-posner-translating-linkedin-into-many-languages/>

4) 월드비전 번역 봉사단 <https://letter.worldvision.or.kr/introduce/introduce.asp>

행위들을 구분해 볼 수 있다. 한 행위에 동기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는데 이를 볼 때 비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 이유는 봉사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자신이 흥미와 감정적 유대감을 가진 콘텐츠를 남과 공유하고 이에 대해 커뮤니티 내에서 인정을 받으려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동기별 번역 행위

동기	동번역 행위
자신이 관심 있는 오락, 지식 등 공유/전파	팬서빙, 뉴스번역, 집합지성 번역
행정상 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봉사	커뮤니티 통번역, 전쟁/난민/재난/사회활동 등 인도적 구호활동이나 편지쓰기 등 참여
사회, 정치적 개혁과 변화 참여	뉴스번역, 블로그 활동
통번역 자체에 대한 관심과 언어 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	각종 자막번역, 번역비평, 오역 지적, 블로그 활동
환경에 대한 친숙함과 정서적 친밀감, 커뮤니티 내의 인정과 경력 개발	각종 자막번역, 게임이나 웹툰 번역, 오픈 소스 번역 프로젝트, SNS 클라우드 소싱 번역

4. 비전문가 번역 현상이 번역학계와 사회·경제에 주는 의미

국내외 이론을 중심으로 비전문가 활동의 배경, 종류, 동기, 특징 등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비전문가들의 번역 참여 현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비전문가 번역은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번역계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두 번째, 비전문가 번역 현상은 번역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4.1 번역계에 제기하는 문제들

우선 비전문가 참여 번역 증가가 번역계에 제기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첫째, 지난 40년간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전문화는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번역사를 위한 법적 보호나 사회적 지위 확립, 자격시험 과정은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별 차이가 많으며, 통번역 기관들도 법조계나 의학계의 기관들과 같이 실제 업무나 관련 법규, 규율 등에 확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Olohan 2012: 194). 특히 국내에는 의사, 변호사 경우 같이 통번역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시험이 없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의 진입이 크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 유무, 통번역 교육 유무, 언어 숙달정도, 통번역 경험, 배경지식 중 하나의 기준만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하는 것은 객관적 구속력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상업기관들이 주도하는 번역의 경우 비전문가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번역을 하고 전문가들이 운영, 감수하는 구조의 협업은 확대될 것이며 양쪽의 업무를 완전히 구분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번역은 그 성격상 타 분야와 관련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번역은 언어(외국어와 모국어) 능력과 방법론적 지식만 습득한다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텍스트 관련 배경지식과 주제 전문지식, 즉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번역이 특정상황과 문맥 내에서 이루어지는 목적과 기능을 가진 의사소통 행위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 분야는 언어전공 뿐 아니라 비언어전공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는 번역학이 학문적으로도 언어학의 그늘에 있다가 다학제적인 학문으로 발전해가는 것과는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김련희 2011: 25). 특히 외국어 언어 능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일반인이 증가하는 시기, “전문가에게 번역 소양을 길러 그 분야의 전문 번역가로 키우는 것이 언어 능력을 지닌 번역가를 특정 분야 전문가로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할 것”(김정우 2004: 26) 이라는 의견도 점점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번역은 언어지식과 번역 기술 뿐 아니라 배경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배경지식을 지닌 언어능력 전문가’인 통번역사와 ‘언어능력을 지닌 배경분야 전문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전문적 지식 뿐 아니라 직접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환경을 알아야 하는 경우나 커뮤니티 내의 정서적 유대감이 크고 사용자들만이 이를 공감할 수 있는 경우 비전문가 번역의 의미는 더 커질 수 있다.

세 번째, 현재 번역시장은 로컬라이제이션을 포함하는 통합 언어서비스를 요구하는 식으로 빠르게 변화를 이루고 있으며 IT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터넷,

다양한 컴퓨터 보조 도구, 소프트웨어 사용이 필수적인 환경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의미의 번역 자체는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IT관련 지식과 기술, 대인관계 능력, 마케팅, 관리 능력 등 다양한 업무능력을 지닌 번역가가 요구되고 있다(김련희 2011). 이렇게 볼 때 언어와 비즈니스, IT 능력을 지닌 인재들은 그런 능력을 언어 능력과 잘 융합한다면 번역계로 진입이 쉬워진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시대는 번역 업무의 성격을 과학기술 활용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점뿐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도 도전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에게만 가능했던 정보의 습득과 서비스 제공이 누구에게나 가능하게 되어 좀 더 용이하게 번역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연석(2014)은 누구나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졌고, 인터넷에 유포할 수 있게 되면서 기사작성 영역에서 기존의 전문가인 기자와 일반인의 영역이 모호해졌듯이 외신번역가와 <뉴스프로>와 같은 단체의 일반인 번역가의 구분도 모호해졌다고 하면서 전문가의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네 번째는 번역 전문가들이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가장 차별화 되었다고 자부하는 영역인 번역 기술과 언어 능력에 관한 측면이다. 번역을 타 분야와 구별된 지식체계를 가진 분야로 여기지 않는 대중의 인식으로 인해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은 이중 언어 구사자들도 번역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 되었다.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주장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번역을 거의 보지 않았고 공식 교육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번역을 할 수 있는 타고난 번역 능력(natural translation)을 가지고 있다”(Harris 1977, Pérez-González & Şusam-Saraeva 2012: 150 재인용)는 가설과 “사람들은 주변 문화 환경에서 무의식적으로 번역 기술을 채득하며 이와 같이 ‘모국어처럼 습득된 번역 능력’(native translation)이 있다”(Toury 1995: 254, Pérez-González & Şusam-Saraeva 2012: 150 재인용)는 가설이다. 이에 근거하면 비전문가들도 어느 정도는 타고난 번역 능력이 있고, 책을 읽고 자막을 보면서 번역 능력을 키워 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비전문가들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자산인 영어를 여러 환경에서 습득한 사람들이며 후천적으로도 번역 자체를 어학능력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습득된 번역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번역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번역이나 흥미, 배경지식이 있는 분야의 번역은 문화적으로 익힌 잠재적 번역 능력을 받

휘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될 수 있다. 또한 많은 비전문가들이 자신이 즐기는 콘텐츠 환경에서 다양한 텍스트에 노출되면서 번역 방법론적인 ‘비판 능력’까지 습득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번역 능력을 얻는다는 사실은 전문가들에게 도전이 되는 일이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 전문성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넘볼 수 없는 한 개인의 특수한 기술과 역량을 의미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개인의 능력 중심 전문성에서 여러 사람들이 개방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협업을 통해 하나의 전문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협력적인 전문성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의 역량만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속도나 비용의 효율성 면에서 집단의 전문성과 경쟁이 어려운 것이다. 이는 비단 번역학계에 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보편적으로 대중 속의 개인들이 모이면, 그들은 발과 손과 감각기관을 지닌 한 사람처럼 되며, 이때 실수는 서로 상쇄되고, 정답이 떠오른다고 한다. 집단 행위는 지식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생각들의 우호적인 경쟁을 장려하며, 선택을 좁히는 매커니즘이 작용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전문가보다 탁월한 통찰력을 발휘하기도 한다(Miller 2011).

여섯 번째, 연구측면의 변화이다. 번역학은 원래부터 주변 학문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학제간 학문으로 여겨졌다. 디지털 혁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참여번역 현상은 번역 뿐 아니라 과학기술,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 언어, 오락 등 많은 분야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점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터넷 세상의 도래로 배경지식과 IT 사용 능력, 언어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 누구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능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티 내 협업을 통해 번역 관리 프로세스 또한 함께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2 비전문가의 등장과 관련된 사회 현상

비전문가 등장은 이와 같이 번역계에 시사점을 던져 줄 뿐 아니라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번역이 갖는 ‘사회적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비전문가들의 통번역계 등장은 매우 복잡한 현대 사회의 발전 상황과

관련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비전문가 통번역은 세계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이 행정적, 경제적으로 통번역 수요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사회참여와 봉사 행위이다. 둘째, 이주와 난민이 증가하는 가운데 박해받는 집단을 새로운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의료, 법정, 행정 분야의 통번역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 중재의 패러다임과 관련이 있다. 셋째, 비전문가 활동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면서 출판, 미디어 시장의 재편과 함께 일어나는 큰 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Pérez-González & Şusam-Saraeva 2012). 이주, 교류 증가로 인한 사회, 경제, 행정적인 필요와 기술적인 발전이 불러온 상황은 수요공급, 번역 프로세스, 중재의 패러다임, 소비자의 부상 등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고 비전문가들은 이 안에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핍 부분을 메꾸고 변화에 부응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비전문가들의 활동이 증가했는가를 보면 앞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통번역의 역할을 예측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의 활동은 현대 사회의 변화의 물결 속에서 그 수요를 충족하면서 다시 사회 발전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비전문가 번역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요즘과 같이 SNS를 통해 누구나 정치적 활동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상황에서는 비전문가들도 사회 주류세력들처럼 번역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조작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구나 평등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 번역계에서는 이데올로기와 정치권력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가 많았는데, 비전문가 번역은 특히 그런 점이 부각되는 영역으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셋째, 비전문가 번역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다. 사업 주체들과 팬들은 협력을 통해 사용자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공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기관들이 배경지식과 환경에 대한 친숙함을 갖춘 사용자로서 비전문가들의 중요성을 깨달아 가면서 이들의 번역은 갈수록 협업화, 시스템화, 상업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비전문가는 주로 번역을 하고 전문가는 감수, 관리를 하는 체계를 보이는데 이같이 제작된 경우 사용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보효과도 거두며 비용도 절감한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비

즈니스와 경제에도 비전문가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을 이용해 무보수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기업 뿐 아니라 번역 수요자와 번역가를 연결해 번역을 완수해주는 중개업체도 늘어나는 등 비전문가들을 활용한 디지털 시대의 소통은 증가할 것이다. 통번역의 원래 목적인 소통과 통합이 더욱 강조되는 사회 내에서 이 업계가 사회 내에서 의미 있고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비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최근 40년간 많은 발전과 확장을 이룬 번역계는 비전문가 활동이라는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Web 2.0 시대에 나타난 도전은 출판, 교육, 언론, 글쓰기 등 인문학계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것이므로 통번역계의 반응도 비전문가의 부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는 기본적으로 배척과 수용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배척은 전문가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비전문가들의 활동은 전문가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전망까지 어둡게 하는 위협으로 여기는 의견이다. 이것은 비전문가의 활동이 지금까지 쌓아온 전문화에 대한 훼손이며 이 때문에 결국 이 분야의 전문가가 제대로 된 대우와 위치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 이 위협을 용인하지 않으며 전문화의 벽을 더 공고히 하려 할 수 있다. 비전문가 번역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법성, 저작권 침해, 품질 보장의 어려움, 익명성 등과 같은 윤리적 한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다.

두 번째 수용은 전문적 행위의 범위를 그 행위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통합적이고 확장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새로운 현상을 전문성을 훼손시키는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변화의 물결을 타고 한 영역이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보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취하면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서로 배우며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이같은 모습은 전문가 번역과 비전문가의 번역 방법이 서로 반영 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자막번역계의 풍토에서 드러나고 있다.

위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이 현상의 장단점을 알아야 한다. 현재, 비전문가 번역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디지털 시대 인터넷 상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텍스트와 영상물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를 읽을 시간은 부족하다. 결국 전문번역가에게 고비용을 들이고 번역할 요청하는 경우는 전체 텍스트의 일부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비전문가들의 통번역 참여로 번역되지 않았을 많은 텍스트들이 번역이 되고 있으며, 공식본이 나오기 전에 미리 번역이 되어 홍보 역할을 하거나, 다양한 버전을 선사하기도 한다. 결국 비전문가 통번역은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언어장벽을 넘어 문화 콘텐츠가 확산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이들 비전문가들은 대부분 스스로 번역 콘텐츠의 사용자들이기 때문에 환경에 익숙하고 자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번역, 혹은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내에서 강한 정서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언어, 문화적 지식과 디지털 지식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번역체계가 제공할 수 없는 번역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한다. 게다가 팬들의 기호와 감정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창의적인 번역을 만들어 내고, 기존 제도권에서는 다루지 않는 콘텐츠를 커뮤니티 내의 정치적 견해에 맞추어 선정하여 번역하는 등 정치사회 면에서 체제를 뒤흔드는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행해진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비전문가 번역이 번역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비전문가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위험과 한계도 존재한다. 무보수나 매우 낮은 수준의 물질적 보상으로 인해 노동력 착취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링크드인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처럼 대기업이 비전문가의 노동을 무보수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거두는 경우로 인해 사회적 논쟁이 일기도 한다. 또한 저작권을 보장받지 않은 채로 번역을 하여 무단으로 배포를 하는 경우 언제든지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비전문가들의 번역은 온라인상에서 다수에 의해 행해지고 배포되기 때문에 품질 보증이 어렵고 익명성에서 오는 책임 부재의 문제도 존재한다. 비전문가들의 활동이 급증하여 전문가들이 보수나 업무 영역 등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는 2차적 부작용도 존재한다. 그러나 품질 면에서는 일반

인이 번역하고 전문 번역가가 감수하는 이원체계 구축, 커뮤니티 내의 피어 리뷰 등 다양한 품질 평가제도, 커뮤니티 내의 불법, 비윤리적 행동을 제어할 지침 구축, 저작권을 확보 등 다양한 대안도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전문가들은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해야 하며 협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 번역가는 기본적인 기술 이외에 일반인의 번역을 감수, 관리하는 능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통번역 이외 다른 전문기술을 익혀야 할 것이다. 김련희(2011)에 의하면 오늘날의 번역 시장은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언어 산업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환경에서 번역사의 역할은 과거와 같이 번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번역 환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매니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해 번역사의 역할은 현지화, 감수 및 편집, 요약하기, 전사하기(transcribing), 프로젝트 매니저 등 매우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리라 예상할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선은 갈수록 흐려지고 협업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비전문가 번역은 배척하기 보다는 수용하여야 할 현상이고 과학기술과 사회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를 번역계가 나아가야 할 길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비전문가 번역이라는 전반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통번역계에 제기하는 문제와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여러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영역에 대한 더 구체적인 연구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려 한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12) 「인터넷 상에서의 번역에 관한 고찰: 누리꾼들의 정치참여로서의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2): 1-33.
- 김가희 (2015) 「중국 팬서브, 공식자막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가?-외화 [어벤져스]의 번역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61(단일호): 251-274.
- 김가희, 최릉우(2015) 「중국 검열이 자막번역에 미친 영향 연구 —영화 어벤져스의 자막번역 양상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총론』 36(2): 39-65.

- 김련희 (2011) 「학부 번역 교육의 현재와 미래」, 『통역과 번역』 13(2): 19-52.
- 김민지 (2016) 『K-pop 번역양상 연구 -주체와 전략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순미 (2012) 「온라인상 독자들의 번역 비평」, 『번역학연구』 13(2): 7-40.
- 김순영, 김희정(2010) 「인터넷 기반 비전문가 자막번역(Fansubs)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고찰」, 『번역학연구』 11(4): 75-97.
- 김정우 (2004) 「대학 교양 영역으로서의 번역 과목의 의의 -원격 교육 방법론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5(1): 25-53.
- 김호영, 홍남희 (2012) 「전지구적 미디어 텍스트의 온라인 유통과 자막 제작자의 역할: 미국 드라마 팬자막(fansub) 제작자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23: 47-77.
- 박경리 (2013) 「미국 드라마 팬자막 이용자의 선호도 조사」, 『번역학연구』 14(5): 117-141.
- 송연석 (2014) 「사회현상으로서의 제도적 번역과 제도권 번역 -<뉴스프로> 사례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6(3): 37-58.
- 이상빈 (2011) 「팬 번역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12(4): 119-143.
- _____ (2012) 「비디오 게임 현지화에 관한 소고 스타크래프트 2 현지화·한글화에 대한 팬덤의 논쟁을 중심으로」, 『통번역학 연구』 16(1): 109-127.
- 이지민 (2014a) 「집합지성과 네티즌 번역 특징에 관한 탐색적 사례 연구」, 『통번역학연구』 18(4): 141-166.
- _____ (2014b) 「전통 영상번역과 팬자막 비교 연구: 문화 관련 어휘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2): 135-158.
- _____ (2015) 「팬 자막과 전통 영상번역은 과연 다른가? 다중기호성을 반영한 영상번역 정의와 자막 형태, 지수 제한, 이국화 전략 탐구」, 『번역학연구』 16(2): 165-186.
- 정호정 (2013) 「번역학 전문학술지의 발달과 최근 연구 동향-1999년 이후 국내외 대표 학술지 분석」, 『통역과 번역』 15(1): 235-256.
- 조성은, 조원석. (2015) 「웹툰 팬 번역 양상 연구-[신의 탑] 팬덤의 정서적 특징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3): 239-263.

- 최수연 (2016) 『영상번역의 사회학적 연구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주영, 최서영(2010) 「집단지성의 유형에 따른 참여자 특성 분석: 위키백과와 지식iN에 대한 한미 비교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4): 258-301.
- Cronin, Michael (2013) *Translation in the Digital Age*, Routledge. NY.
- De Palma, Donald, and Nataly Kelly (2009) ‘Project Management for Crowdsourced Translation: How User-translated Content Projects Work in Real Life’, in *Translation and Localization Project Management: The art of the possible* 379-408.
- Désilets, Alain, and Jaap van der Meer (2011) ‘Co-creating a repository of best-practices for collaborative translation’ in *Linguistica Antverpiensia, New Series - Themes in Translation Studies* (10).
- Dwyer, Tessa (2012) ‘Fansub Dreaming on ViKi: “Don’t Just Watch But Help When You Are Free”’ in Luis Pérez-González & Şusam-Saraeva (eds) *The Translator* 18(2): 217-243.
- García, Ignacio (2010) ‘The Proper Place of Professionals (and Non-professionals and Machines) in Web Translation’, in *Revista Tradum tica* 8: 1-7.
- Goode, Luke (2009) ‘Social News, Citizen Journalism and Democracy’, in *New Media & Society* 1287-1305.
- Jiménez-Crespo, Migual A. (2011) ‘From Many One: Novel Approaches to Translation Quality in a Social Network Era’, in *Linguistica Antverpiensia, New Series - Themes in Translation Studies* (10).
- Kelly, Nataly, Rebecca Ray & Donald A. DePalma (2011) ‘From Crawling to Sprinting: Community Translation Goes Mainstream’, in *Linguistica Antverpiensia, New Series - Themes in Translation Studies* (10).
- McDonough Dolmaya, Julie (2012) ‘Analyzing the Crowdsourcing Model and Its Impact on Public Perceptions of Translation’, in Luis Pérez-González & Sebnem Şusam-Saraeva (eds) *The Translator* 18(2): 167-191.

- Mikkelsen, Holly (1996) 'The Professionalization of Community Interpreting', in *Global vision: Proceedings of the 37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77-89.
- Miller, Peter (2011) *Smart Swarm*, New York: Penguin Group.
- Munro, Robert (2010) 'Crowdsourced Translation for Emergency Response in Haiti: the Global Collaboration of Local Knowledge', in *AMTA Workshop on Collaborative Crowdsourcing for Translation* 1-4.
- O'Hagan, Minako (2009) 'Evolution of User-generated Translation: Fansubs, Translation Hacking and Crowdsourcing', in *Journal of Internationalisation and Localisation* 1(1): 94-121.
- _____ (2011) 'Community Translation: Translation as a Social Activity and Its Possible Consequences in the Advent of Web 2.0 and Beyond', in *Linguistica Antverpiensia, New Series - Themes in Translation Studies* (10): 11-23. Available at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81748799_Community_Translation_Translation_as_a_social_activity_and_its_possible_consequences_in_the_advent_of_Web_2_0_and_beyond.
- Olohan, Maeve (2012) 'Volunteer Translation and Altruism in the Context of Nineteenth-Century Scientific Journal', in Luis Pérez-González & Sebnem Şusam-Saraeva (eds) *The Translator* 18(2): 193-215.
- Pérez-González, Luis & Sebnem Şusam-Saraeva (2012) 'Non-professionals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Participatory and Engaged Perspectives', in Luis Pérez-González & Sebnem Şusam-Saraeva (eds) *The Translator* 18(2): 149-165.
- Pérez-González, Luis (2014) *Audiovisual Translation Theories, Methods and Issues* Routledge, NY.
- Zhang, Weiyu, and Chengting Mao (2013) 'Fan Activism Sustained and Challenged: Participatory Culture in Chinese Online Translation Communities', in *Chinese Journal of Communication* 6(1): 45-61.

[Abstract]

Participatory Translation of Non-professionals in the Digital Age and its Implications on the Translation Community

Kim, Soon Mi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Digital age has turned ordinary users into producers of contents for the public, leading to the rapid emergence of non-professionals translating texts without monetary rewards. Drawing on the researches of “user-generated”, “community”, or “participatory” translation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nature and trend of non-professional translation and its impact on the translation community which has focused on professionalization of the profession in the past forty years. With linguistic proficiency, genre knowledge and a keen interest in the topic, the newly-emerging non-professionals are different from their counterparts in the past few decades. They produce creative and in some way high-quality translations reflecting the sentiment and bondage shared in online communities. Individuals with the same goal of translating dramas, movies, pop-songs, webtoons, games, free open source softwares, news articles, intellectual and educational contents, and websites collaborate to share terminology and background knowledge, give peer-review and edit/revise translations online. With non-professional translations become increasingly commercialized and specialized and professional translations adopting strategies used by non-professionals, non-professionals and professionals are affecting and learning from each other.

▶ Key Words: non-professionals, participatory translation, translation in the digital age, user-generated translation, professionalization

김순미

숙명여자대학 영문과 조교수

smikim@sookmyung.ac.kr

관심분야: 번역과 사회/사회현상, 디지털 시대의 번역, 커뮤니티 통역, 문학번역

논문투고일: 2016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2016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2016년 9월 22일